

국어 오직 시험의 감을 위한, 수능 Item!

# 시험의 법칙

최영수 지음

Rule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의 감(感)을 찾는 7가지 법칙




# 2014 수능, Rule7의 퀘거!


## 2014년 수능 A형

- 1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3쪽)
- 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7번: 선지 오류의 법칙 (045쪽)
- 8번: 보기-선지의 법칙
- 18번: 대립 선지의 법칙 (180쪽)
- 1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23번: 보기-선지의 법칙 (093쪽)
- 24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5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7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31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33번: 일탈 선지의 법칙 (149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 2014년 수능 B형

- 3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3쪽)
- 17번: 선(先) 꼬리의 법칙
- 18번: 선(先) 꼬리의 법칙
- 2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3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5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8번: 선(先) 꼬리의 법칙 (116쪽)
- 29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0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2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33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7쪽)
- 3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8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1번: 선(先) 꼬리의 법칙
- 4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시험의 법칙이 한 시험에 5문제 정도만 활용되어도 굉장히 유용한데 2014년 수능에는 약 20문제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이 정식 출판되기 전에 미리 만나본 수험생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량 때문에 책에 넣지 못한 문제의 분석은 rule7 카페 <http://cafe.naver.com/rule7> 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Rule track


I. 발문-선지의 유형	009
II. 선지 오류의 유형	039
III. 보기-선지의 유형	063
IV. 선(先) 꼬리 유형	095
V. 일탈 선지의 유형	137
VI. 대립 선지의 유형	161
VII. 공통 선지의 유형	189
정답 및 해설	217

## 정답과 해설

I. 발문-선지의 유형	220
II. 선지 오류의 유형	254
III. 보기-선지의 유형	282
IV. 선(先) 꼬리 유형	312
V. 일탈 선지의 유형	350
VI. 대립 선지의 유형	382
VII. 공통 선지의 유형	422

## 칼럼

8번 문제의 기막힌 우연	037
과학적 근거의 짚기	061
국어의 사주팔자	094
문제집의 불편한 진실	136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다	159
4800초의 시간 컨트롤	187
2014년 수능 시험의 법칙 적용 쾌거!	215



## Rule 7 Message!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책도 그 책만으로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올려줄 수 없습니다. 국어 점수는 언어적 감, 국어 지식, 풀이 노하우 등 다양한 학습이 고등 사고를 거쳐 나오는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에 Plus Item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에 제시된 국어 시험의 7가지 법칙은 어쩌면 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느끼는 무의식적인 문제 풀이의 감을 학습의 테마로 했으며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풀이 방법 및 기술서류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지문은 생략하고 해설 편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3일 만에 책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 소개되는 7가지의 법칙이 수학 공식처럼 100%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주관적인 국어 과목에 높은 확률의 규칙성을 이론화·유형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수능(80%)을 중심으로 중3, 고 1~2 성취도 평가 및 국어교사 선발문제까지 확대하여 폭 넓은 시기(1994~2014)의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국어 시험의 법칙이 특정시기, 특정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의 국어 지식을 100% 쏟아 낼 시험의 감 혹은 문제 풀이의 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감(感)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message continue

<http://cafe.naver.com/rule7>

## Rule 7 사용방법 & 주의사항

1. 각 Rule의 안내문제를 먼저 읽고 해당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2. 연습문제는 A, B, C 세 단계로, 한 단계를 풀고 반드시 해설 확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연습문제의 지문은 분량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해설에 별도 탑재했습니다.
4. 연습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민하여 풀어야 시험의 감(感)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간을 고려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5. 연습문제 채점 후 틀린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해설을 통해 문제 풀이의 감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6. 교재에 소개된 시험의 법칙, 시험의 원리, 출제 지침 등은 국어의 감각과 문제 풀이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이니 이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어에는 주관적인 학문 특성상 객관적인 수학처럼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공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7. 본 교재의 학습 목적이 여러분의 평소 국어 학습에 시험의 감(感)과 문제풀이의 넓은 안목을 더해 실전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Rule 7 event!

하나, 교재 학습 후 친구에게 추천할 경우 (카페에 구매자, 추천인 ID 등록)  
둘, 교재 학습 후 후기를 작성할 경우  
셋, 교재의 오류를 신고할 경우 (오타, 정답오류, 해설오류 등)

참여 수험생 모두에게 문화 상품권(만원 상당)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Rule 7 카페에서 상세 안내

▶ <http://cafe.naver.com/rule7> (자료 업데이트, Q & A, 국어 전문 칼럼)





# 시험의 법칙



## Rule 1

### [발문-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지문을 읽지 않고 【발문-선지】만으로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영수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지문 생략 -

- ① 낮을 잘 가린다.                      ② 가족이 많다.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키가 매우 크다.                      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지문 없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국어 시험은 모든 과목 중에서 지문이 가장 많고 길다. 그만큼 지문을 의지하여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책의 첫 문제부터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문제 풀이를 하다가 간혹 지문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문을 생략한 문제는 처음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 문제는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먼저 출제자가 묻는 말인 발문부터 보자. 발문이라는 것은 해당 지식을 알고 있는 자(출제자)가 모르는 자(수험생)에게 묻는 말로, 모르는 자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과는 다르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영수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발문의 핵심정보인 '영수의 성격'과 관련성 있는 선지(선택지의 줄임말)를 살펴보자.

① 낮을 잘 가린다.	⇒ 사람의 성격에 해당
② 가족이 많다.	⇒ 사람의 성격이 아님
③ 건강한 편이다.	
④ 키가 매우 크다.	
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선지 ①만이 사람의 성격으로 발문의 핵심정보인 '영수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내·외적 상황이지 사람의 성격을 직접 나타내는 말은 안 된다. ②~⑤는 발문

핵심의 최소 정보인 '성격'에도 해당되지 않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문을 확인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①이 답이 된다.

위 문제가 정상적인 형태가 되려면 '성격'을 나타내는 선지가 최소 하나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것이 지문에 나와 있는 영수의 성격인지 선택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문 없이 발문과 선지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1 번째 시험의 법칙인 **【발문-선지】의 법칙**이다.

### 1. 발문-선지의 법칙

- 1) 발문에서 정답의 조건을 분석한다.
- 2) 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지를 확인한다.
  - ▶ 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지가 1개이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100%이다.

국어 시험을 보면서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 문제 풀이 감이 좋아서? V S 문제 자체가 엉성해서?

엉성한 문제라면 위 경우는 저자가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수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어 시험에서 지문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었다.

## 01 안내 문제 **읽글을 읽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05 6월 평가원 |

-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했을까?
-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을까?
-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이였을까?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했을까?
-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 + 시험의 원리 |

### 항상 발문을 먼저 보자

수능 국어영역은 [지문 + (보기) + 발문 +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험생이 먼저 봐야 할 것은 [발문 ⇒ (보기) ⇒ 선택지 ⇒ 지문]인데, 발문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읽어야 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문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평소 문제풀이에서 접했던 발문 유형을 수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문제풀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발문 유형에 따라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거나 긴 지문 속에서 정답의 단서가 될 위치를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위 문제는 지문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기에 지문을 아예 생략했다. 위 문제의 발문을 분석해 출제자는 수험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자.

발문 분석	답의 조건
A 윗글을 읽고	⇒ 지문(윗글)과 관련성을 지녀야 함
B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성을 지녀야 함
C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 심화(정도가 깊은) 학습과 관련성을 지녀야 함
D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 질문형태 혹은 그런 의도의 내용이어야 함
E 가장 적절한 것은?	⇒ 상대적으로 최선 부합(적절)형 이어야 함

그리 길지 않은 발문이지만 정답이 되기 위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단 A는 지문이 없으니 통과. 다음 B, 각 선지가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	⇒ 자격루 원리와 관련 (정답)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	⇒ 자격루 표준 시계의 사용 시기 관련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	⇒ 자격루 원리와 직접 관련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	

‘자격루의 원리’에서 ‘원리’(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의 의미가 선지 ①의 자격루 오차 보정(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과 관련이 있다. 즉,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하는 데(보정)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②는 자격루 표준 시계의 사용 시기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③~⑤는 ‘자격의 원리’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

정답은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B 자격루 원리)도 만족하지 못하는 선지 ②~⑤는 당연히 정답에서 제외되며 ①만이 답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문은 물론 발문의 나머지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①이 다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문제가 된다. 생략된 지문을 확인한 실제 답도 ①이며 발문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도입 문제와 같은 **【발문-선지】**의 법칙 유형으로 발문과 선지만으로 답을 100%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 + 시험의 원리 II

### 언어적 직감이 중요하다

위 문제는 발문 핵심어인 ‘원리’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원리’가 다섯 선지의 핵심 낱말 중에서 ‘보정’과 가장 관련된다는 것을 언어적 직감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적 직감은 지문을 읽고 풀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 출제자의 의도인가? V S 출제자의 실수인가?

### 1) 명백한 실수이다

위 문제는 결국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단순한 문제가 되었다. 출제자가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을 요구했다면,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된 선지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심화 학습, 기본 학습으로 선지를 구성해야 모범적인 된 문제가 된다.

- ①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
- ②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 정답

## 2) 실수가 아닌 의도된 것이다

수능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객관식 시험에는 권고하는 출제 지침이 있다. 출제자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 ④ 객관식 출제 지침 中

“한 문제의 발문에서 묻는 바는 한 가지로 하고  
두 가지를 묻는 경우에는 두 문제로 출제할 것을 권함”

이는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단일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위 문제의 의도는 발문 내용(자격루의 원리) 중 낱말(원리)의 뜻을 선지에 적용하는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문은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두 의견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출제자는 의도적으로 출제 지침을 어겨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매력 오답을 구성해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린다.

### 〈 모범적인 매력 오답의 구성 모형 〉

정답: ⑤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①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형태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② 윗글과 관련 없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③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④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형태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의 근거를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가)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自擊漏)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배가량 키워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 넣고, 물받이 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잴 수 있게 통을 2개로 늘렸다. 여기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격루를 완성하였다.

(나)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方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만 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물받이 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 놓은 잣대가 고인 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수호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자격루의 수수호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가), (나)에 선지 ①의 '자격루의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자격루의 원리를 활용한 방법으로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의 근거가 된다.

## 02 다음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 2012 수능 |

안내 문제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 문제풀이 시 시선 1순위는 발문

발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위 문제의 발문은 참 깔끔하다. 답도 깔끔하게 구해질까? 발문의 핵심정보에 대한 배경지식만 조금 있다면 가능하다. 일단 발문을 다시 살펴보자.

Q 다음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발문 핵심어인 '명제'의 간단한 개념만 알아도 답이 바로 보인다. 명제란?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선지 ⑤는 명제가 될 수 없다.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 명제 ×

사람의 주관적 생각인 선지 ⑤의 바람직한 삶은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①~④는 객관적 현상 혹은 사실로서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하기에 '명제'이다.

명제는 명제인데 '의미 없는 명제'의 의미는 지문을 읽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미 없는'이라는 부정적 수식어 때문에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 문장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제가 아닌 선지 ⑤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생략된 지문을 통한 실제 정답도 ⑤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서 '의미 없는 명제'의 의미를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 지문에 '의미 있는 명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선지 ①~④는 일반적인 명제이지만 ⑤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없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 ⑤가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이유는 선생님의 삶이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 03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안내 문제

| 2001 수능 |

- ① 종환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그런데 농촌이 수탈된 마당에 술 익는 마을이 어디 있었겠어?
- ② 민희 :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아. 그 당시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나그네처럼 먼 길을 힘들게 걷다가 노을을 찾아오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그 허무한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닐까?
- ③ 인규 :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 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 시험의 법칙



## Rule 2

### [선지 오류]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선지 자체가 국어 혹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때 문제가 부정형 발문일 경우 잘못된 선지가 답일 가능성은 거의 100%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 생략 )?

- 지문 생략 -

- ① 수업 직전에 예습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② 집중이 잘 안 되면 잠시 쉬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
-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 ⑤ 한 과목보다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발문의 일부도 생략**

지문은 물론 첫 번째 시험의 법칙인 **【발문-선지】**에서 강조한 발문의 핵심정보마저 없다. 정답은커녕 정답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발문이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 즉, 적절한 것을 원하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원하지도 알 수 없다. 다행히 선지 내용은 온전하다. 일단 이것이라도 살펴보자.

① 수업 직전에 <b>예습</b> 하는 습관을 갖는다.	⇨ (상식적으로) 맞은 말
② <b>집중</b> 이 잘 안 되면 잠시 쉬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b>공부</b> 한다.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b>공부</b> 한다.	
⑤ <b>한 과목보다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b>	⇨ 비상식적

각 선지의 핵심어(예습, 집중, 공부)를 보니 위 지문은 ‘학습’을 제재로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혹시 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선지 ①~④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⑤는 비상식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문이나 발문의 내용이 무엇이든, 얼마나 있든, 심지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선지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선지 ⑤, 한 과목만 집중해도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시도조차도 어렵고 집중을 방해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안다. 주변에 국어와 수학책을 각각 한 장씩 넘기며 공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답이 선지 ⑤로 예상되며 발문은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어울린다. 다만 지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⑤를 답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능에서 부정형(적절치 않은) 발문에 선지가 일반상식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국어 시험의 2번째 법칙인 【선지 오류】의 법칙이다.

## II. 선지-오류의 법칙

- 1) 발문이 부정형임을 확인한다.
- 2) 선지를 배경지식과 일반상식으로 확인해본다.
  - ▶ 배경지식이나 일반상식으로 잘못된 선지는 100% 정답이다.

수능은 초·중·고 국어교육과정의 종결자격인 시험이다.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과연 나올까?

### 01

안내 문제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효과적인 독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재생’을 ‘독서’라고 가정하고 연상했을 때, ①~⑤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7 9월 평가원 |

- ① 빨리 감기 : 독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다.
- ② 되감기 : 다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도 한다.
- ③ 정지 : 독서를 하다가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
- ④ 일시 정지 : 독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기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
-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앞선 도입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비록 모의수능이지만 위와 같이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이미 출제되었다. 상식적으로 선지 ⑤가 적절하지 않다.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 비상식적

이유는, 뇌가 두 가지 활동(독서+음악듣기)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활동(독서)

을 하는 것이 더 집중도 잘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독서가 더 잘되던데’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책만 보기에 집중이 안 돼서 음악이 필요한 것이다. 집중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독서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 【선지 오류】의 법칙 문제는 선지 자체의 오류도 답의 근거가 된다!

【선지 오류】의 법칙에 관련된 출제 지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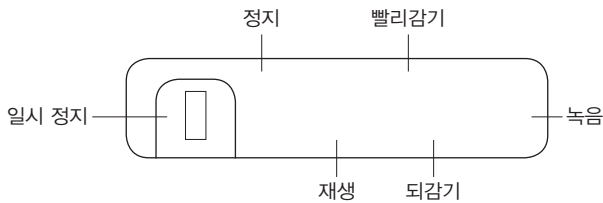
### 객관식 출제 지침 中

“지문 혹은 발문과 상관없는 선지 자체의 내용 오류로 인해 정답의 단서가 되지 않게 주의한다.”

출제자는 지침을 준수하며 지문을 통한 수험생의 능력 평가를 의도하였으면 최소한 선지 자체의 내용을 오류 없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오류가 수능을 포함한 여러 국어 시험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수험생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문제 풀이의 감(感)을 극대화해야 한다.

생략된 그림 자료와 함께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 그림은 음악 재생 컨트롤 메뉴로 독서하기를 음악 듣기로 비유한 것이다. 음악 감상 중 선지 ①의 빨리 감기는 독서에서 읽지 않은 다음 부분을 미리 보는 것으로, ②의 되감기 기능은 독서에서 읽은 부분을 다시 보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면 ③처럼 음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잠시 가사를 생각해 보거나 메모를 한다든지 하여 음악을 ④처럼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이어서 들을 수 있다. 이는 독서를 아예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는 것으로 비유된다. 하지만 ⑤의 녹음은 음악 듣기가 아니다. 이는 외부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저장하는 것이므로, 독서하면서 음악 듣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안내 문제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2003 수능 |

- ① ㉠ 나룻배 : ‘행인’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 불 :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 물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 나무 :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 하늘 :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 배점이 높은 중요한 문제도 쉽게!

2003년 수능 당시에 높은 배점(3점)의 문제답게 지문은 물론 〈보기〉까지 해석해야 답을 찾으려 출제자는 의도하였다. 하지만 【선지 오류】의 법칙으로 지문과 〈보기〉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선지 ③을 문학적 배경지식이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③ 물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나무는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물이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무를 살리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생략된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 • 보기 •

- 작은 배 :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화와 재생
- 물 :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화와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의 의지, 크고 넉넉한 인격.
- 하늘 :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물’은 재생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죽은 나무뿌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니 이를 적시는 물도 단순히 부정적인 상징(죽음, 소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출제자의 함정에 걸린 것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

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  
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잡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응운, 「나룻배와 행인」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가)의 「나룻배와 행인」은 인내와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나)의 「내 마음 아실 이」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다)의 「우리가 물이 되어」는 부정적인 것들과 맞서 진정 하나가 됨을 노래한 시이다. (다)에서 ㉠'물'을 가문 어디에서나 좋아한다고 하며 긍정적 시어로 보았기에 '물'을 소멸과 죽음의 부정적 시어로 본, 선지 ㉢은 적절하지 않다.

### 03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내 문제

| 2014 수능 |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UCC 제작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제작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중 제작 기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의향은 있으나 실제로 제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상식이 곧, 정답이다!!!

이전 문제보다 선지가 길어져서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문제도 **상식으로 지문**은 물론 <보기>도 읽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선지 ㉢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UCC 제작 경험이 있음 ⇒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 있음

UCC 제작 경험이 없음 ⇒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 없음

UCC 제작 경험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UCC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만드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CC 제작 경험 여부와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 여부**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듯 진술한

# 시험의 법칙



## Rule 3

### [보기-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지문과 참고 자료인 <보기>가 함께 제시된 문제는 <보기>를 먼저 봐야 한다. 【보기-선지】의 관련성만으로 지문 없이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내용 중 <보기>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지문 생략 -

• 보기 •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어.
- ② 너는 유행하는 옷은 입지 않는구나.
- ③ 외모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 ④ 얼굴이 중요한 게 아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 ⑤ 저 잘생긴 남자는 마음도 착할 거야.

위 문제는 지문은 물론 <보기>까지 봐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수험생들이 꺼리는 유형이다.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은 발문 ⇒ <보기> ⇒ 선지 ⇒ 지문 순서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문 없이 <보기>와 선지만으로도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제 풀이 시, 시선 1순위인 발문을 <보기>와 함께 보자. 그리고 둘을 종합해 보자.

발문 ▶ 다음 글에 나타난 내용 중 <보기>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보기>의 핵심 ▶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다음 글에 나타난 내용 중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종합된 발문으로 정답을 찾아보면,

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어	
② 너는 유행하는 옷(외면)은 입지 않는구나	⇨ 내면 외면 비교 없음
③ 외모(외면)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 내면만 중시 (추측)
④ 얼굴(외면)이 중요한 게 아냐, 마음(내면)이 중요한 거지.	⇨ <b>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b>
⑤ 저 잘생긴(외면) 남자는 마음(내면)도 착할 거야	⇨ 외면을 먼저 고려

종합된 발문의 핵심정보(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를 만족하는 선지는 ④이다. <보기>와 발문만으로 문제가 풀리기에 지문을 볼 필요가 없다. ④의 내용은 지문에 당연히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도 자주 등장하며 역시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어 시험의 3번째 법칙인 **【보기-선지】의 법칙**이다.

### III. 보기-선지의 법칙

- 1) <보기>의 핵심을 파악한다.
- 2)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 있는 선지를 찾는다.
  - ▶ 지문을 보지 않고도 2)의 해당 선지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 01 [A]에 넣을 표현으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1점)

| 2009 수능 |

안내 문제

### • 보기 •

- ㉠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드러낼 것
  - ㉡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를 제시할 것
- ①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벽화 그리기는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연계하기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앞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더 많은 학생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 ③ 그동안 주민들은 마을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낙후된 생활환경 때문에 삶에 활력이 없었습니다. 벽화 그리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④ 벽화 그리기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축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교육적인 활동에 주민들이 함께한다면 그 의의가 더욱 클 것입니다.
- 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 줍니다. 개선된 생활공간에서 주민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게 될 것입니다.

### 지문 없이도 답을 100% 확신!

【보기-선지】 법칙의 전형적 문제로 최근까지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다. 지문 없이 답을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지가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분석해 보자.

- A. [A]에 넣을 표현 ⇨ 지문을 고려해야 함.
- B.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 ⇨ <보기>를 고려해야 함.

선지가 발문의 A, B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답이 된다. 하지만 위 문제는 <보기>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지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문 없이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선지를 <보기>의 조건(㉠ 교육적 효과, ㉡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분석해보자.

① 우리~바랍니다.	⇨ 두 개 다 만족 ×
②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연계	⇨ ㉠ '교육적 효과' 만족
③ 삶에 활력이~이런 문제들을 해결	⇨ ㉡ '생활상의 변화' 만족
④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축제 문화를 만들어	⇨ ㉠ '교육적 효과' 만족
⑤ 학생들에게~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줌. 주민들은~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게 됨.	⇨ ㉠ '교육적 효과' 만족 ⇨ ㉡ '생활상의 변화' 만족

### 이것은 출제자의 실수!!!

선지 ⑤만이 <보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지문을 통하여 문제를 풀게 했으면 ⑤와 같은 선지가 최소 하나는 더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문까지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 문제의 배점에 주의하자!!!

위 문제는 2009년 수능 당시 1점(최하위)짜리 수준의 문제이다. 이렇게 수능에서 최하위 점수의 문제는 지문 없이 쉽게 풀리고는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상의 대화가 벌어지기도 한다.

### 수능 문제 검증단 VS 수능 출제진

**검증단:** “지문도 안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으니 문제를 엉성하게 만든 것 아닌가?”

**출제진:** “꼭 지문을 통해서만 답을 찾아야 한다는 출제 지침은 없다.”

**검증단:** “그럼 단순한 지식측정이 되어 수능 평가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출제진:** “최하위 배점(1점) 문항으로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건 무리이며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설정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프로그램명	공공건물 벽화 그리기
제안 단체	△△고등학교 미술반, 지역 문화 탐방반
<p><b>【제안 이유】</b> 우리 ○○면에는 철이 벗겨진 벽을 그대로 배치한 건물이 많습니다. 특히 면사무소나 보건소는 지저분한 벽 때문에 건물뿐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황폐해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공공건물에 생동감을 불어넣고자 벽화 그리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찾고 싶어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p>	
<p><b>【제안 내용】</b> 벽화에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주제와 소재를 결정해야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할 것입니다. 벽화를 완성한 후에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도 마련하려 합니다. 저희가 벽화를 그릴 건물을 지정해 주십시오. 또 이 활동을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p>	
<b>【기대 효과】</b>	[A]

다음과 같이 지문과 <보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지는 ⑤이다.

**지문:** 벽화에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아야 합니다.

**<보기>:**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드러낼 것

➔ 선지 ⑤: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협동심을 심어 줌.



**지문:** 벽화를 완성한 후에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도 마련  
**〈보기〉:**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를 제시할 것

➔ 선지 ⑤: 주민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게 될 것

## 02 다음 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내 문제 | 2014 예비 수능 |

### • 보기 •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취업이나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할 때에 그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여 읽는다. 또 새로 구입한 전자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작동하기도 한다. 이로 보아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①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②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군.
- ③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군.

### 물방울 모양 아이콘: 무엇과 무엇이 관련 있나?

〈보기〉의 핵심과 선지 ⑤가 다음과 같이 관련성을 갖는다. 이 둘을 합쳐보자.

〈보기〉의 핵심 ▶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선지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



독서는 우리 생활(삶)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니 하나의 내용을 <보기>와 선지 ⑤로 분리한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보기>의 핵심과 선지가 한 문장의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되면 해당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선지 ③, ④는 학습이나 지식에서의 한정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⑤보다는 <보기>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 ③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군.  
 ④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②는 지문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외. 그리고 선지 ①의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는 A가 아닌 B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 + 시험의 원리 IX

#### 서술어에 담긴 출제자의 심리

위 문제의 경우 각 선지 서술어의 의미가 모두 무엇이 무엇보다 무엇을 강조하여 비교 우위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⑤는 직접 '강조'라는 낱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출제자가 ⑤를 먼저 정답으로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오답을 만들어 선지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① ~초점을 맞추고 있군.	⇨ (결국엔 무엇이 무엇보다 ~을 강조)
② ~역설하고 있군.	⇨ (결국엔 무엇이 무엇보다 ~을 강조)
③ ~선호하고 있군.	⇨ (결국엔 무엇이 무엇보다 ~을 강조)
④ ~중시하고 있군.	⇨ (결국엔 무엇이 무엇보다 ~을 강조)
⑤ ~강조하고 있군.	⇨ 직접적으로 '강조'라는 낱말 사용.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각 선지의 서술어를 잘 살펴보자. 서술어만으로도 정답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나는 일찍이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본다.[以意逆志]”라고 한 맹자의 말을 글 읽는 비결로 삼았다.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해 두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해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 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굿을 할 때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기가 모르던 것을 환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옛사람의 문장에 기대거나 옛사람의 목은 자취를 좇지 않고 변화시켜 근본을 캐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은 뒤에라야 비로소 오묘한 이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홍대용, 「매헌(梅軒)에게 씀」

➔ 지문의 필자인 A는 삶의 도리나 이치를 얻기 위한 독서를 하고 <보기>의 B는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 ㉔가 적절하다.

## 03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내 문제

| 2013 9월 평가원 |

### • 보기 •

- ㄱ.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 ㄴ.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군.
- ② ㄱ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 시험의 법칙



## Rule 4

### [선(先) 꼬리]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은 지문의 끝 부분(단락)에 정답의 단서가 많다. 그래서 지문의 끝 부분(단락)을 먼저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1** 지문이 생략된 문제를 풀려고 한다. 지문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부분을 보겠는가?

- ① 처음(머리)                      ② 중간(몸통)                      ③ 끝(꼬리)

**Q2** 생략된 지문의 정보 중에서 한 가지만 알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 ① 글의 제목                      ② 글의 종류(장르)                      ③ 글의 주제  
④ 글의 제재(글감)                      ⑤ 지은이 성향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두 문제 다 선지 ③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먼저 2번 문제 선지의 특성을 살펴보자.

① 글의 제목	⇒ 글의 전체 내용을 압축, 대표하여 드러냄
② 글의 종류(장르)	⇒ 글의 목적에 따른 형식 (설명문, 논설문, 소설, 시 등)
③ 글의 주제	⇒ <b>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b>
④ 글의 제재(글감)	⇒ 글에 사용된 재료
⑤ 지은이 성향	⇒ 성격, 주변 환경 등

###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선지 ③의 글의 주제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주제를 알면 글의 전반적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의 주제가 '급식을 3교시가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라면 다음과 같이 글의 전반적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① 글의 제목	⇒ '3교시 후 급식'
② 글의 종류(장르)	⇒ '주장의 글'
④ 글의 제재(글감)	⇒ '급식'
⑤ 지은이 성향	⇒ '아침밥을 자주 먹지 못해 배가 금방 고프름.'

다음 1번 문제를 보자. 글에서 선지 ③의 끝(꼬리) 부분엔 무엇이 있을까?

- ① 처음 ⇨ 배경, 안내, 글의 목적, 흥미 유발
- ② 중간 ⇨ 구체적 내용
- ③ 끝 ⇨ 정리, 요약, 강조

보통 글의 끝부분은 이전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한다. 그런 가운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곧, 주제가 드러난다. 물론 주제가 처음이나 중간부분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끝부분에 많이 나타난다.

### 끝 부분을 먼저! 【선(先) 꼬리】의 법칙!

수능은 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지문의 처음과 중간보다는 꼬리(마지막 단락)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고 출제자가 주제와 관련하여 정답의 근거를 끝부분에 많이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문에서 꼬리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 풀이이다.

### V. 선(先)-꼬리의 법칙

- 1) 지문 전체를 4등분 한다.
- 2) 지문의 꼬리 부분(4/4)을 먼저 읽는다.
- 3) 지문의 꼬리 부분과 관련된 선지를 찾는다.
  - ▶ 지문의 꼬리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을 가능성은 다른 부분보다 3배 이상 높다.

**지문 & 해설**

(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낳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돌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나)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 거리'라 한다. 유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다)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한 유전 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미생물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림(생략)에서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생략)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는 일정 수준 미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하는 미생물 종의 정의가 도출된다.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01**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내 문제

- ①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 ④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
- 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된다.

발문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수험생이 꺼리는 유형이다. 왜냐하면, 선지와 지문을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의 첫 단락이 아닌,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었다면 빠르게 선지 ③이 답임을 확신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을 따로 보면,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정답)

'유전', '미생물 종 구분'란 어휘가 두 번씩 나타났으며, 이것이 선지 ③에도 나타나 있다. 그뿐만 아니라 ③은 꼬리 지문인 (마)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 시험의 원리 XIII

**보편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경쟁력이 없다.**

발문 읽기 ⇨ 각 선지의 내용확인 ⇨ 지문 첫 단락부터 읽기  
⇨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비교해보기 ⇨ 정답 및 오답 판정

위와 같이 보편적인 방법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꼬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꼬리 지문을 통해 정답 선지를 발견했다면 굳이 다른 나머지 선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답을 확신했는데도 심리적 불안 때문에 나머지 선지와 지문을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해당 문제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두었다가 모든 문제를 다 풀 후 검토해보아도 늦지 않는다.

**지문 & 해설**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 02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내 문제

- ①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 ②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다.
- ③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귀납의 결론은 확실히 참이다.
- ④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이다.
-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 03 뒷글로 미루어 볼 때,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내 문제

- ① 충분한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반증 없이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 ③ 실패한 지식이 곧 성공적인 지식임을 명심하라.
- ④ 수많은 반증의 시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 ⑤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

### [선(先) 꼬리]의 법칙으로 1 + 1 = 2 문제를 동시에 해결!

두 문제 모두 정답의 근거가 꼬리 부분에 있다. 꼬리 부분만 따로 놓고 이와 관련 있는 선지를 찾아보자.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 02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정답)

꼬리 지문에서 경험적인 반증이 불가능한 지식은 선지 ⑤의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03**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정답)

포퍼의 견해를 꼬리 지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담한 가설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선지 ②에서 과감하게 가설을 세운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②에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고 거의 그대로 나타나 있다.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 답이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 다음과 같이 다른 표현을 썼다.

지문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
정답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

이는 다음과 같은 시험의 지침을 준수한 것이다.

**객관식 출제 지침 中**

“지문의 내용을 선지로 옮길 때에는 정답의 단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번에는 꼬리 지문만으로 무려 3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경우이다.

**[04-06]** 다음 꼬리 지문에 집중하며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8 9월 평가원 |

**지문 & 해설**

인간 사회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에 따라 기술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국가 기술 정책의 수단이 기술 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다음,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평가와 처방은 기술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통제의 딜레마란, 비록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 시험의 법칙



## Rule 5

### [일탈 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다섯 선지 중 하나가 나머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 V. 일탈-선지의 법칙

- 1) 한 가지 기준으로 선지를 분석한다.
  - 2) 4개와 다른 하나의 일탈 선지를 찾는다.
- ▶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일탈 선지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 01-1 다음 중 나머지와는 성격이 다른 낱말을 고르시오.

안내 문제

- ① 본색                      ② 욕망                      ③ 타락  
④ 위선                      ⑤ 성찰

##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발문에 제시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낱말'은 문제의 선지 중에서 일탈(정해진 영역에서 벗어남) 선지인 것을 말한다. 어떤 방법으로 일탈 선지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선지를 분석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조합된 선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동일한 선지에서도 여러 기준으로 일탈 선지를 찾을 수 있다.

- ① 소나무, ② 구름, ③ 연필, ④ 과자

기준 1: 생명성 유무 ⇨ 오직 ① 소나무만이 생명성이 있어서 일탈!

기준 2: 취식 가능/불가능 ⇨ 오직 ④ 과자만이 취식이 가능하여 일탈!

기준 3: 이동성 가능/불가능 ⇨ 오직 ② 구름만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 일탈!

## 분류 기준 세우기!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위 문제의 선지에 제시된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살펴보자.

- ① 본색 : 본디의 특색이나 정체.  
② 욕망 :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③ 타락 :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④ 위선 :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⑤ 성찰 :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각 낱말의 의미를 살펴보니 선지 ⑤ 성찰만이 확실히 좋은 뜻이고 ③ 타락 ④ 위선은 확실히 나쁜 뜻이다. 하지만 ① 본색과 ② 욕망은 문맥 없이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뜻이다. 그래서 위 문제는 완벽한 기준으로 일탈 선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만 중립적인 ① 본색과 ② 욕망이 문학 작품 등의 여러 글에서 좋지 않은 문맥 중에 많이 사용되기에 ①~④는 ⑤와는 다르게 같은 부류로 묶어 볼 수 있다.

위 문제의 선지는 다음 기출된 수능 문제의 일부분이다.

## 0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2 수능 |

안내 문제

- ① ㉠: 북광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광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광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광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광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선지의 밑줄친 낱말을 긍정적 / 부정적 이미지로 기준을 세워 분류하면 선지 ⑤만이 긍정적이고 나머지 선지는 부정적이다.

① <u>본색</u> 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부정
② <u>욕망</u> 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③ <u>타락</u> 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④ <u>위선</u> 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⑤ <u>성찰</u> 하는 공간이다.	⇨ 긍정 (정답)

다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지 ⑤의 성찰은 확실히 긍정적 이미지이다. 그리고 ③의 타락, ④의 위선은 확실히 부정적 이미지이다. 또한 ①의 본색 = ②의 욕망, 이 둘은 선지의 흐름 상 ⑤의 성찰보다는 ③의 타락, ④의 위선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기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일탈 선지】의 법칙이 적용되어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일탈 선지인 ⑤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선지 ⑤가 답임을 확인해 보자.

## 지문 &amp; 해설

어느 날 ㉠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 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킁킁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렵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 려.”

- 박지원, 「호질」

▶ 박지원의 「호질」은 양반의 도덕적인 허위의식을 비판 풍자한 소설로 선지 ⑤의 ㉤들판은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의 꾸지람을 듣고 잠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하지만, 아침에 농부가 나와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다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문제도 일탈 선지를 골라내는 기준을 생각해 보자.

## 02

안내 문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1 수능 |

-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 일탈 발견의 시작은 선지 분석!

선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① 모내기 철에 <b>품앗이</b> 를 하였다.	⇒ 좋은 현상 (긍정적)	⇒ 합당한 이익
② 사재기를 통해 <b>폭리</b> 를 취했다.	⇒ 나쁜 현상 (부정적)	⇒ 부당한 이득 (정답)
③ 직장 동료끼리 <b>교대로</b> 점심을 샀다	⇒ 좋은 현상 (긍정적)	⇒ 합당한 이익
④ <b>할인 매장</b> 에서 <b>싼값</b> 으로 물건을 샀다		
⑤ 알뜰 시장에서 <b>중고 물건</b> 을 <b>맞바꾸었다</b>		

나머지와는 다르게 선지 ②만이 나쁜 현상(부정적)으로 일탈이다. 그래서 **【일탈 선지】**의 법칙에 의해 지문 및 발문을 보기 전에 일탈 선지인 ②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 + 시험의 원리 XVII

#### 훌륭한 분석 기준?

#### 좋은 현상 VS 나쁜 현상

문장을 분석할 때 위의 기준을 적용해도 될까? 당연히 된다.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최소 둘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리고 좋은 현상을 긍정으로 나쁜 현상을 부정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 출제자는 **【일탈 선지】**의 법칙을 알까? 모를까?

당연히 모른다. 알고 있다면 일탈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약 80%가 될 만큼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험의 출제 지침은 존재한다.

### ☑ 객관식 출제 지침 中

“문제마다 각 선지의 길이를 균형 있게 맞춰  
수험생에게 특정 선지가 눈에 띄지 않게 한다.”

그래서 보통 국어 시험의 선지는 모두 비슷한 길이어거나 선지 ①에서 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선지의 길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

이기에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일탈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에게 너무나 유용한 문제풀이 도구인 셈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이처럼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값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 지문의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는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인 자발성과 절차적 합리주의인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선지 ㉡는 자발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반 시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03 주인공 '나'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1996 수능 |

안내 문제

- 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나 소심한 편이다.
- ② 환상적인 꿈을 좇고 미래를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 ③ 개인적 신념이 투철하며 냉정하게 현실에 대처해 나간다.
- ④ 현실 파악은 다소 느리지만, 저돌적으로 자기 목표를 실현한다.
- ⑤ 매사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 시험의 법칙



## Rule 6

### [대립 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반대 맥락의 선지 한 쌍이 있다면 그 한 쌍의 선지 중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영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문 생략 -

- ① 급하다.
- ② 게으르다.
- ③ 친절하다.
- ④ 느긋하다.
- ⑤ 배려심이 많다.

이젠 지문이 없는 게 익숙하다. 선지 분석을 해보자.

① 급하다.	⇨ 사람의 성격	⇨ 단점
② 게으르다.	⇨ 사람의 성격	⇨ 단점
③ 친절하다.	⇨ 사람의 성격	⇨ 장점
④ 느긋하다.	⇨ 사람의 성격	⇨ 장점
⑤ 배려심이 많다.	⇨ 사람의 성격	⇨ 장점

지문이 없으니 선지가 영수의 성격인지, 다른 사람의 성격인지 알 수 없다. 장·단점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분석해서 일탈 선지가 있으면 그것을 답으로 예상은 해보겠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니 조금 더 살펴보는 수밖에.

살펴보니 단점 2개 장점 3개이다.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지문에 있는 영수의 성격은 장점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발문이 적절하지 않은 영수의 성격을 묻기 때문에 단점 2개 중에 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를 짚을 것이다. 짚어도 괜찮다. 어차피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지문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수들은 짚을 때도 다르대!!**

찍더라도 정답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지 선지를 한 번 더 살펴보자. 보이는가? 보였다면 당신은 이미 고수이다. 선지 ① 급하다와 ④ 느긋하다는 서로 대립(반대 혹은 모순)되는 성격이다. 한 사람이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는 어렵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 각각 한 번씩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건 성격이 아니라 일시적 행동이다. 왜냐하면, 성격은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을 통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① 급하다 혹은 ④ 느긋하다 중 하나가 영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수능을 포함한 국어 시험에서 대립(반대 혹은 모순)되는 선지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80%이다. 이것이 국어 시험의 6번째 법칙인 **【대립 선지】**의 법칙이다.

## VI. 대립-선지의 법칙

- 1) 선지를 분석한다.
  - 2) 선지 중에서 서로 대립 혹은 모순되는 것을 찾는다.
  - 3) 대립의 형태를 파악한 후 정답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 1:3 대립 (약 99%) 1:2 대립 (약 90%) 1:1 대립 (약 75%)

다음은 **【대립 선지】**의 법칙이 1:1 형태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대립을 이루는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잘 살펴보자.

### 01

안내 문제

〈캐츠〉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2011 수능 |

- ①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 ② 감독이 고양이들의 등장 장면에서 채택한 연출 방식이 작품의 주제 구현을 오히려 방해해서 실망했어요.
- ③ 늙은 암고양이의 회한이 담긴 노래의 가사는 들을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요.
- ④ 기발한 조명과 의상이 사용된 것을 보고,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 ⑤ 의인화된 고양이들의 삶과 내면이 노래들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인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 대립? 대립!

도입 문제처럼 대립 선지를 쉽게 찾았는가? 다시 말하지만, 대립은 두 내용이 반대 의 맥락을 이루거나 서로 모순되는 짝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수는 남자이다 ↔ 영수는 여자이다  
난 연필보단 볼펜이 좋아 ↔ 난 필기구 중에선 연필이 제일 좋아  
그 여자는 어제 집에만 있었다. ↔ 그 여자는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

문제의 선지 ①, ④를 살펴보자.

① 멋진 춤과 ~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정답)



④ 기발한 ~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선지 ①, ④는 함께 있으면 모순되는 반대의 맥락이다. 왜냐하면, ④의 원작의 주제에 걸맞다는 원작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하기에 ①의 원작과 관계없다와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선지가 길지만 반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짧아서 대립 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①, ④가 1:1 대립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75%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 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뮤지컬을 '레뷰(revue)',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 지문에서 〈캐츠〉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 즉 원작의 충실한 전달이 아닌, 춤과 노래의 다채로움과 완성도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다는 선지 ①은 최근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하다.

이번에도 선지가 1:1 대립 형태를 이룬다. 대립 부분을 잘 찾아보자.

02  
안내 문제

다음 '원문'을 '은영'과 '서연'이 각각 요약하였다. 상호 평가 과정에서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4 예비 수능 |

- ①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 ②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 ③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고 반복적인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여러 내용을 나열하지 말고 내용 간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긴밀하게 연결해야 해.
- 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발문에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서연이 은영보다 요약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언은 뛰어난 사람이 그보다 못한 이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문의 '상호 평가'가 무언인지 알고 넘어가야 하지만 지금 필요한 일은 아니다. 발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대립을 이루는 선지를 바로 찾아봐도 된다.

선지 ①, ②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

①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정답)



②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왜냐하면 선지 ①의 찾아서 선택은 그 안에 있는 그대로라는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②의 바꿔 써야 해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전 1번 문제는 대립 부분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어서 대립 부분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다음과 같이 숨은 의미를 겉으로 표현하면 대립 부분이 쉽게 눈에 띈다.

① 원문의 (있는 그대로)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해. (정답)



② 원문의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그래서 1:1 대립을 이루는 선지 ①, ②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75%이다.

## 【대립 선지】의 법칙, 출제자는 알고 있을까?

당연히 알고 있다. 시험 출제 지침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 ① 객관식 출제 지침 中

“각 선지의 내용이 확연하게 대립을 이루어  
정답을 찾는데 단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출제 지침을 의식한 출제자는 대립 부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위 문제처럼 숨기는 것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하여 정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 원문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등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 왔다. 한때는 타자기가 연필을 밀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예측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하지만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의 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20세기 중반에 나무 연필은 역대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 ‘은영’의 요약문

나무 연필들은 새로운 필기도구들의 도전을 줄곧 받아왔다. 한때는 타자기와 컴퓨터가 연필의 종말을 예측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나무 연필은 샤프펜슬, 만년필, 타자기와 컴퓨터의 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미국만 해도 연간 20억 자루가 생산되었다.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 ‘서연’의 요약문

나무 연필은 새로운 필기도구뿐만 아니라 타자기와 컴퓨터의 도전을 받아 왔지만, 오늘날까지 대중의 필기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

➔ 원문의 중심 문장은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이다.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은 은영의 요약문에도 있기 때문에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하라는 선지 ①은 조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시험의 법칙



## Rule 7

### [공통 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최대 공통 맥락의 선지 한 쌍이 있다면 그 한 쌍의 선지 중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 수준의 문제이다. 답을 구해보자.

### 1 다음 중 야구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②       ③       ④       ⑤ 

### 2 다음 중 야구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②       ③       ④       ⑤ 

1번 문제는 선지 ⑤가 야구공으로 적절하며, 2번 문제도 발문에 '가장'이 붙었지만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두 문제의 차이는 발문에 '가장'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있든 없든 답은 동일해서 '가장'이란 말이 불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가장'은 정답과 제일 비슷한 ④도 답이 될 만한 여지를 없애준다. 왜냐하면, 이 '가장'은 수험생에게 가장 만족하는 선지를 고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엔 발문에서 '가장'은 정답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 3 다음 중 야구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②       ③       ④       ⑤ 

### 4 다음 중 야구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②       ③       ④       ⑤ 

3번 문제는 답이 없다. 왜냐하면, 선지 ⑤는 동그라미 혹은 그냥 공일 뿐 야구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번 문제는 ⑤가 상대적으로 야구공 모양에 가까워 답이 될 수 있다. 3번에서 정답이 되지 않은 ⑤가 '가장'이라는 조건이 붙어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수험생**: “아무리 따져 봐도 선지 ⑤는 그냥 동그라미이지 야구공은 아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답이 없다”

**출제진**: “그럼 야구공이 없으면 제일 야구공과 가까운 것을 찾아야 한다.”

“발문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의도했기 때문이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답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 국어 시험에서 이 ‘가장’은 출제자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이는 복수 정답의 논란을 막고 상대적으로 정답의 조건에 가까운 것을 찾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 시험에 유독 ‘가장’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 위의 문제 1번과 2번 발문의 중요한 일부를 삭제해 보자.

1 ( ) 으로 적절한 것은?

- ①       ②       ③       ④       ⑤ 

2 ( )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②       ③       ④       ⑤ 

1번 문제는 발문이 생략되어 풀 수 없다. 하지만 2번 문제는 위의 설명을 깊이 이했다면 공통점(동그라미)이 있는 선지 ④, ⑤ 둘 중의 하나는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문제에는 정답과 닮은 매력 오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2번 문제처럼 수능에서 발문이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공통점이 가장 많은 한 쌍(2개)의 선지가 있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한 쌍의 선지 중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이것이 국어 시험의 7번째 법칙인 **【공통 선지】**의 법칙이다.

## VII. 공통-선지의 법칙

- 1) 발문이 최선 긍정형임을 확인하다.
- 2) 선지 간의 공통(관련성)요인을 찾아본다.
- 3) 최대 공통점을 갖는 선지가 한 쌍임을 확인한다.
- ▶ 최대 공통점의 선지 둘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은 약 80%이다.

**01** [A]와 [B]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문을 쓰고자 한다. 그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내 문제 | 2004 9월 평가원 |

- |                |             |
|----------------|-------------|
| ① 삶의 본질적 의미    | ② 삶의 고난과 좌절 |
| ③ 세속적 삶의 비판    | ④ 삶의 신비와 동경 |
| 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             |

문제의 발문에 '가장'이라는 말이 있어 최선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공통 선지】**의 법칙 첫째 조건을 만족한다. 그다음 도입문제에서 동그라미와 야구공은 동그랗다는 공통(관련성)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지 간에 **공통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자.

① 삶의 본질적 의미	⇨ 긍정·부정의 양상을 포함 (정답)
② 삶의 고난과 좌절	⇨ 부정의 양상
③ 세속적 삶의 비판	⇨ 부정의 양상
④ 삶의 신비와 동경	⇨ 긍정의 양상
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 긍정·부정의 양상 (매력 오답)

'삶'이란 낱말이 눈에 띄지만 모든 선지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한 쌍의 최대 공통 선지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각 선지를 긍정·부정의 양상으로 분석해 보면 선지 한 쌍인 ①, ⑤가 **최대 공통요인(긍정·부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통 선지】**의 법칙으로 ①, ⑤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80%이다.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①이고 ⑤는 매력 오답이다. 출제자는 정답인 ①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정답과 가장 많이 닮은 매력 오답 ⑤를 만든 것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든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왜냐하면, 정답의 내용은 발문이 만들어지는 순간 나오게 되어 있으며 이 정답을 중심으로 답은꼴의 수준을 조절하여 오답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험의 출제 지침이 있기에 매력 오답의 수준이 적정선으로 유지가 된다.

## 객관식 출제 지침 中

“오답 선지의 매력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수험생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권함”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선지가 수험생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지침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수치화한다는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위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 [A]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서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 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켄」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가) 신경림의 「갈대」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비애를, (나)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는 바람벽에 오고 가는 외로운 생각과 시적 화자의 자기 위안을 노래하고 있다. [A]의 중심의미는 삶의 고독이고, [B]의 중심의미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이다. 이 둘의 의미를 가장 포괄하는 것이 선지 ① 삶의 본질적 의미이며 이를 주제로 비평문을 쓰기에 적절하다.

다음 안내 문제는 1번보다 선지가 더 길다. 마찬가지로 【공통 선지】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이니 어떤 형태로 최대 공통의 선지 쌍을 이루는지 살펴보자.

## 02 <보기>를 모두 활용하여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 관한 공익 광고를 만들고자 한다. 안내 문제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05 수능 |

- 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사회, 부정부패 척결에서 시작됩니다.
- ② 맹목적인 경쟁사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 ③ 밝고 따뜻한 사회,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 ④ 효율적인 기업경영,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입니다.
- ⑤ 맑고 깨끗한 물 만들기, 후손을 위한 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문이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형 문제이다. 선지는 1번 문제보다 길어졌지만 각 선지마다 친절하게 선포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기 편하게 구분할 수 있다.

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사회	부정부패 척결에서 시작됩니다 (정답)
② 맹목적인 경쟁사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매력 오답)
③ 밝고 따뜻한 사회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④ 효율적인 기업경영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입니다
⑤ 맑고 깨끗한 물 만들기	후손을 위한 투자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선지 ①, ②, ③이 ~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 공통(관련성)된다. 이들을 한 쌍으로 추리기 위해 뒷부분을 더 살펴보자. 그러면 ③이 상대적으로 동떨어진다. 왜냐하면 ①, ②만이 다음과 같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부정부패 척결에서 시작되며(①) 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②)

그래서 **【공통 선지】**의 법칙으로 ①, ②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은 약 80%이다.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①이고 ②는 매력 오답이다. 출제자는 정답인 ①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정답과 가장 많이 닮은 매력 오답 ⑤를 만든 것이다.

## + 시험의 원리 XXII

### 출제자의 매력 오답 VS 수험생의 정답 찾기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지문이 매우 어렵거나 발문이 복잡해서가 아니다. 정답을 매우 많은 매력적인 오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수험생은 선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민하다가 매력 오답에 빠지게 된다. 【공통 선지】의 법칙은 이러한 문제의 원리를 수험생 입장에서 역이용한 것이다. 최선 긍정형 문제에서 지문을 보기 전에 2개의 최대 답은 골 선지가 있다면 그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80%)을 의식하고 지문을 살펴보자.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 1) 물이 더러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 2)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면 반칙입니다.
- 3) 오랫동안 앉아 온 썩은 이를 뽑아 주세요.

➔ 선지 ①은 지문과 다음과 같이 관련성을 가져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하다.

지문	선지 ①
1) 물이 더러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깨끗하고
2)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면 반칙입니다.	정정당당한
3) 오랫동안 앉아 온 썩은 이를 뽑아 주세요	부정부패 척결

## 03 ㉠과 ㉡을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05 9월 평가원 |

안내 문제

- ① ‘나’는 묘를 쓰고 싶어 한다.
- ② ‘나’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 ③ ‘어머니’는 고향을 떠난 일을 후회하고 있다.
- ④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
- ⑤ ‘어머니’와 ‘나’는 내심 오빠를 화장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